

## 조달청, G2B사이트 나라장터 자리 굳혀

조달청은 G2B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해 10월 개통 이후 1년 동안 모두 25조원 상당의 전자상거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현재 2만5천여 기관과 8만7천여 기업이 나라장터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입찰 비율이 91.4%, 쇼핑몰 구매비율은 97.0%에 달해 1년 동안 1천760만명이 접속하고 1천420만명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핵심 사업으로 개발된 나라장터는 입찰공고와 업체 등록을 위한 창구를 단일화해 나라장터 공고가 의무화된 입찰정보 10만여건을 비롯해 모두 13만여건의 공공 발주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8만7천여 업체가 조달청에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상품정보와 전자서식 등을 국제표준에 맞게 표준화해 39만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입찰서와 보증서 등 전자문서 15종을 국가표준으로 등록, 공동이용을 촉진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G2B)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서비스 혁신사업과 백업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8월까지 88억원을 투입, 유익한 정보를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고객지향적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비상재해시에도 조달청 전산실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108억원을 들여 별도 장소에 백업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사이트 전문 조사기관인 ‘(주)메트릭스’가 30개 공공사이트의 올해 상반기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나라장터가 1인당 방문횟수 및 페이지뷰, 체류시간에서 1위, 전체 방문횟수 및 페이지뷰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이용률이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표준혁신방침 바르게 재정립돼야

소위 신성장동력 등의 산업기술 인프라를 견인할 국가표준(KS) 기술평가체제가 일대 혁신을 이룬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고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을 대표하는 기술표준원을 세계 수준으로 재정립해 신산업을 육성·발현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밝히고 나선 국가표준 기술평가체제 혁신방침은 의미가 크다.

“지난 15일 '표준의 날'에 맞춰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말한 대로 국가경쟁력은 핵심 인프라에 달려 있다”로 함축해도 넘치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면 반도체나 부품소재 IT 환경 안전 등 6천여종에 이르는 글로벌화된 표준을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산업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가표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은 마땅히 추진돼야 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기술표준원도 재정립해야 하므로 이번 발표에 기대되는 바다.

혁신사업 가운데서도 몇가지는 더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공공재적 표준확대 보급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신산업 발현에 대비한 국가인프라 표준제정은 투자가 배가돼야 할 부문이다. 여기다 차세대 성장산업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와 신뢰성 인증의 역할수행을 할 표준화방법은 물론 산업계와 정부에서도 혁신적 국가표준 R&D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여유를 두어서는 안 될 줄 안다.

국가표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시험소인정기구(KOLAS)의 인정시험 항목과 분야를 확대해야 하고 마땅한 인력을 양성하는 대안도 세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급인력 양성은 국가표준과 그를 대표하는 기술표준원의 중심에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다. 기왕 정부가 국가표준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나선바에 인프라를 견인할 기구며 인력 등 모두가 바르게 재정립되었으면 한다.

### PL 대응 우수기업 입찰 가산점 부여

“중기청, 'PL수준 평가제도' 내년부터 도입 예정”

12월 한국PL협회 시범사업 실시

제조물책임(PL)에 대한 대응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PL보험료 할인혜택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PL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PL수

준 평가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PL협회는 오는 12월부터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PL수준 평가제도는 중기청이 올해초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PL협회가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 각 단계별 업체의 대응수준 등에 대한 항목별 배점 평가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 최근 모델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PL협회는 이와 관련 내년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2월 20여 업체를 대상으로 PL수준평가 시범사업을 벌인뒤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산자부, 겨울철 수급대책 마련... 최대전력수요 4650만kW 전망

공급 예비율은 14.9% 안정적, LNG·유연탄 등 연료 수급 원활

올 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여름철 전력수급 평가 및 겨울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올 겨울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4650만kW로 전망되나 공급능력은 5344만kW, 공급예비율 14.9%로 안정적 공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었던 LNG 수급문제는 가스공사의 10월 보유량이 14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8월 중국 대동탄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일시적인 수급차질이 우려됐던 유연탄도 현재 모든문제가 해소돼 발전회사마다 적정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8개 발전기가 송전선로 고장으로 정지하고 154kV 송전철탑 11기가 넘어졌으며 140만가구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을 상기, 향후 한전 등 관련기관과 함께 신규발전설비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기 및 송전선로 고장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4739만kW였으며 공급능력은 5549만kW를 보여 공급예비율 17.1%를 기록했다.